

생태계

글 | 송지혜

그림 | 이소리

글 | 송지혜

그림 | 이소리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이것 봐, 숲속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지. 따뜻한 햇빛, 맑은 공기도 있고 부드러운 흙과 흐르는 시냇물도 있어. 이런 환경에서 여러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생태계’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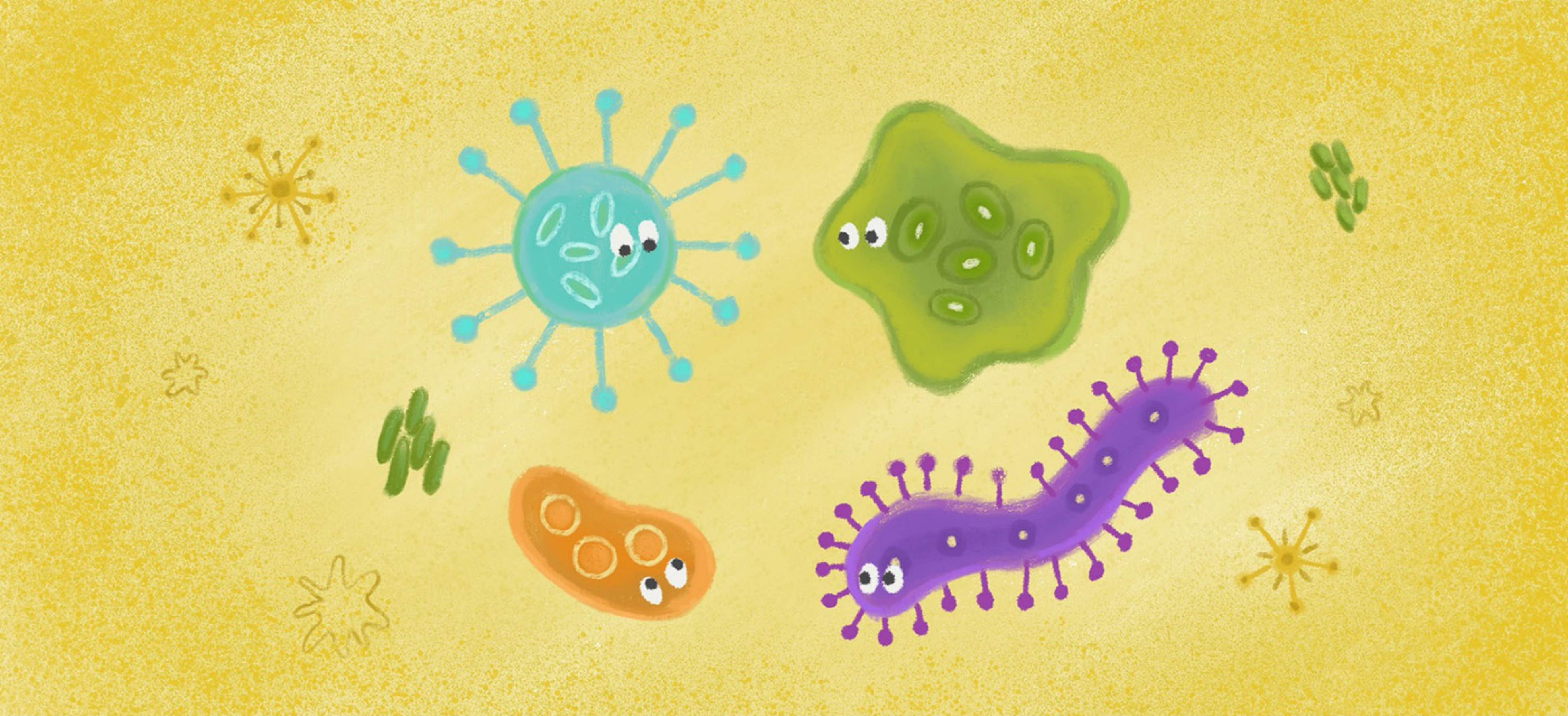
생태계에 사는 생물들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얻지.
나무와 풀 같은 식물은 햇빛을 받아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이때
산소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사람이나 동물이 호흡할 때 쓰인단다.
그래서 그런지 숲속 공기가 무척 상쾌한걸?



식물과 달리 동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내지 못해. 그래서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어. 초식 동물은 풀이나 나뭇잎을 뜯어 먹지. 그리고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사냥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채소와 고기로 식사를 하지.



으음, 하마터면 썩어가는 열매를 밟을 뻔했어. 나무에서 떨어진 지 오래되었나 봐. 죽은 생물이 썩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세균이나 버섯, 곰팡이 같은 작은 생물들은 죽은 동물과 식물 몸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거든.



이렇게 분해된 죽은 생물의 몸은 거름이 되어 식물들이 잘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에 이들이 없다면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이 썩지 않고 그대로 쌓이겠지. 그러면 이 아름다운 숲속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야.



이처럼 생태계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미생물같이 작은 생물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덕분에 생물의 종류와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생태계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계는 여기 숲뿐만이 아니야. 사막, 밀림, 바다, 강, 심지어
조그만 어항 속까지...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한다.



평소에 생태계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지만 지진이나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위험에 빠지기도 해. 하지만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더 심각한 문제야. 이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 되돌리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우리 사람들도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그래서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 결과가 어떨든지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거야. 지금부터 주변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

“생태계”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